

진상위 및 법률분과위원님께 알립니다.

기소장 작성을 위한 모임과 그 후 개별 논의에서 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7일 모임에서는 일본군위안부제도 성립과 동원, 군위안소 생활, 패전직후 군위안부에 대한 대응 및 이후의 후유증 문제, 현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판, 일본정부의 태도, 일본 극우파들의 대응 등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모아서 대강의 구성을 하여 조시현교수에게 보내면 조시현교수와 김창록교수가 다시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박원순변호사와 논의하고 다시 진상위 및 법률위에서 돌아가며 재작업한다. 그래서 3월까지 어느 정도 기소장 가안을 만들어간다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모임 직후 논의를 통해 이 과정에서

1)진상위에서는 ①강정숙이 간행된 연구물과 전쟁책임자료센터에서 나온 관련자료를 모으고 ②하중문교수가 요시미교수 자료와 국민기금 간행자료에 주제별 색인을 만들고 그 관련자료를 복사하여 하여 조시현, 김창록교수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피해자 증언분석에서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정진성교수가 증언집 서문에서 해 왔던 것이 있고 증언집이 있으므로 법률분과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제대로 정리하여 전달하려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므로 일단 1월 10일 이전까지 작업을 하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최일숙변호사는 증언집 검토를 꼼꼼히 하였으므로 법률분과분들과 논의하여 증언집에 대한 의견을 내고 정리하는데 같이 참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 빠뜨린 이야기가 있으면 저의 이메일(wumright@chollian.net)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

1999.12.29

강정숙올림

참고: 12월 18일 진상규명위 회의에서

법정에 증언할 분 5명(2명 정도 가능하다고 하나 2000년 12월 시점까지의 할머니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김복동 김군자 김윤심 신현순 김화선으로 결정하였고 건강 등의 이유로 증언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비디오 작업을 할 분으로 손판임 문명금 훈 하군자 등을 정하였다. 그리고 증언할 의지는 넘치지만 여러 여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된 분들 예를 들어 이용수, 황금주할머니 등은 당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